



2026. 6. 29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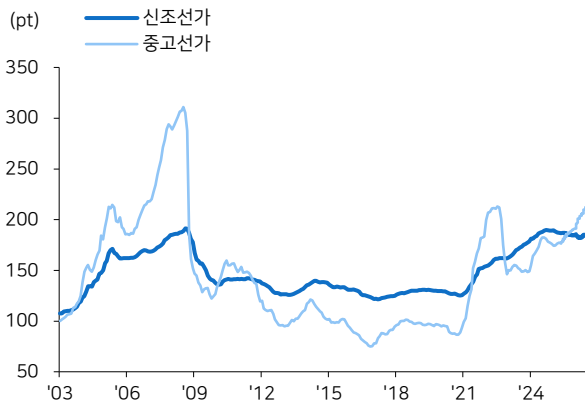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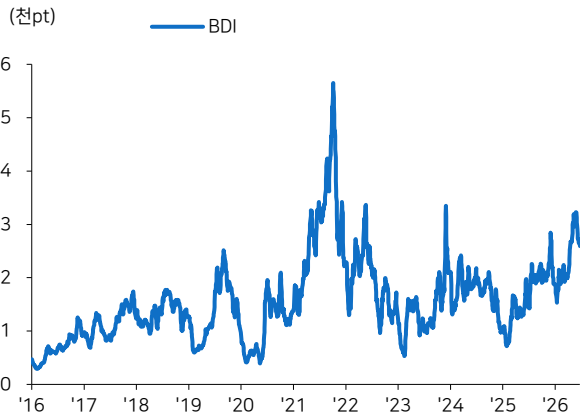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2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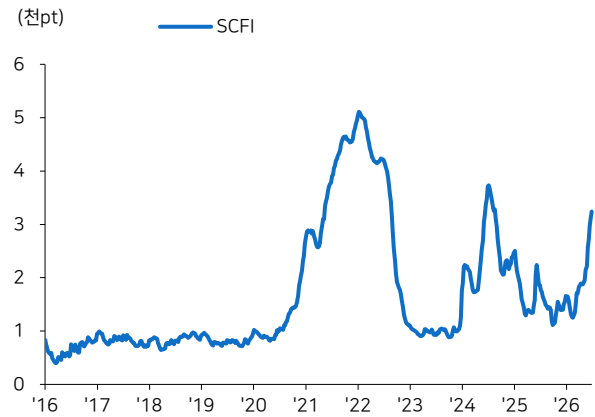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3.0달러 (-7.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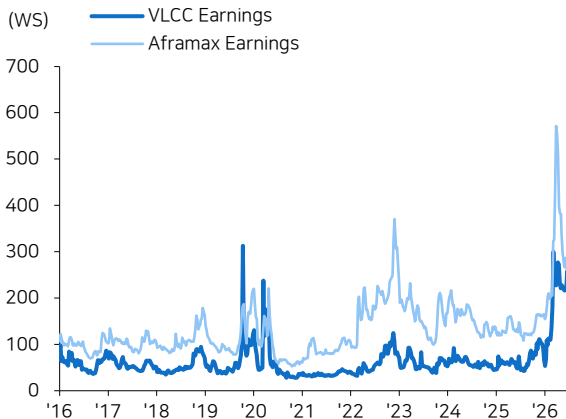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591.0p (-4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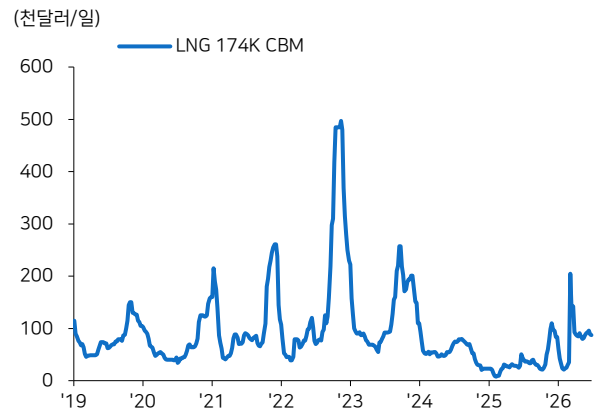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239.6(+118.0 WoW)



**VLCC Spot Rate** 208.7WS (-49.2p WoW)



**LNG Spot 운임** 87.5천달러 (-1.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More Senate Republicans join team behind Ships for America Act (TradeWinds)** <https://zrr.kr/fdiSNN>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Ships for America Act의 공동 발의자로 최근 Lindsey Graham, Ashley Moody, John Curtis, Susan Collins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추가로 참여함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됨. 현재 상원 버전의 법안에는 총 15명의 공화당 의원과 9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해양 정책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입법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전해짐. 이 법안은 250척 규모의 전락 상선대 구축과 미국 조선업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하원에서는 국방수권법(NDAA)의 일부로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짐.

**美 '조선 부활법' 의회 제출...200억달러 해양안보기금 신설 (해양통신)** <https://zrr.kr/dZbEMA>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소 투자 확대, 선박금융 지원, 세제 혜택 및 미국 국적선 육성을 골자로 한 대규모 해양산업 지원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됨. 이번 법안은 해양행동계획을 정책화한 내용으로, 해양안보신탁기금 신설 및 선박금융제도 개편을 통해 조선업 재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나, 미국의 산업 기반이 약화된 점을 고려할 때 자립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으로 알려짐. 정부는 미국 조선업이 생산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는 브릿지 전략을 병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합정 건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이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전해짐.

**Former Hanwha Shipping chief breaks down cost of US-built LNG carrier (TradeWinds)** <https://zrr.kr/RCDwSf>

라이언 린치 전 한화수평 대표가 미국 내 LNG 운반선 건조 비용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10억 달러보다 낮은 6억 4,800만 달러 수준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고 보도됨. 이는 한국 조선소의 건조 비용인 2억 4,900만 달러의 약 2.5배 수준으로, 미국 내 건조 시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은 노동 비용보다 기업 간접비, 시설 상각비, 생산 규모의 경제 부족 등에서 기인한다고 전해짐. 미국 조선소는 한국과 달리 연간 30~40척을 건조하는 효율적인 생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적당 할당되는 간접비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나, 향후 생산 인프라와 숙련된 노동력을 확충하면 비용 격차를 줄일 수 있을 전망으로 알려짐.

**"한화와 함께"...英대사 공개 러브콜에李大통령 '함박웃음' (한국경제)** <https://zrr.kr/oldC4b>

클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한화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영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영국 방산기업 밥콕과 팀을 이뤄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을 진행 중이며, 영국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한화오션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밥콕의 현지 정비 경험과 NATO권의 신뢰도를 결합해 비NATO 국가 기업이라는 한화오션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전해짐.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은 약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현재 한화오션은 우수한 납기 능력과 원양 항해 실적을 앞세워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알려짐.

**HD현대중, 제이오션중공업에 군산조선소 7,800억 매각 (이데일리)** <https://zrr.kr/pEh5HN>

HD현대중공업이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산조선소를 제이오션중공업에 7,800억 원에 매각하는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제이오션중공업은 HJ중공업의 최대주주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올해 연말 자산 양도가 완료되면 인프라 정비와 설비 보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완성선 건조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군산조선소가 대형 선박 건조 기지로 다시 가동됨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조선 기자재 협력업체들의 낙수효과가 기대되며, 전북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회복될 전망이라고 알려짐.

**한화 필리조선소, 3개월 만에 또 납품...'美 국적' 첫 해저 암석설치선 인도 (더구루)** <https://zrr.kr/KDrnbl>

한화 필리조선소가 미국 국적 첫 해저 암석설치선인 아카디아호를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지난 3월 다목적 훈련함 인도에 이어 한화 인수 이후 두 번째 건조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도됨. 길이 140미터 규모의 아카디아호는 향후 미국 뉴욕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에 투입될 예정이며, 이번 인도는 한화의 인수 이후 건조 역량 강화와 체질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고 전해짐. 데이비드 김 한화 필리조선소 최고경영자에 따르면 이번 인도로 한화 필리조선소가 고도의 전문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을 입증했으며, 앞으로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 기지 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